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고난받은 주를 바라(찬12장/새33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병인 장로 2부/김문식 장로 3부/김성귀 집사 4부/이진호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내 영혼이 은총입어(한지현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부/사도행전(Acts) 12:18-25.....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2:27-42
- 말씀 Message1, 2, 3부..... Rev. Jacob Park **박경철 목사**
복음은 보함이 아닙니다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43): 싱어게인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충만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 Rev. Jacob Park **박경철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On a Wonderful Day in October



박경철 목사 / Rev. Jacob Park

어느덧 여름의 계절이 지나 가을의 계절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면 초등학교 시절 교회의 사찰 집사셨던 할머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섬기셨던 교회는 10월이 되면 성도님들이 자신이 키운 국화를 교회의 계단에 하나씩 이름표를 달아 전시하던 추국(秋菊)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는 교회계단 한칸 한칸에 수백개의 국화 화분이 장관을 이루며 한달 이상을 피어있었는데 어린시절에도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교회가 마치 천국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추국전을 준비하시기 위해 제 기억으로는 초여름부터 국화 묘종을 화분에 심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때부터 햇빛 양이 바른 곳에 두시고 비료도 주시고, 혹시 여름의 땀별에 마르지 않을까 물을 수시로 주시며 정말 애지중지 기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 화분에 꼭 먹이셨던 것이 있었는데, 교회에 전시를 하는 화분이니 기도로 키우셔야 한다면서 늘 물을 주시며 병들지 않고 예쁘게 커서,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키워달라는 기도를 더 하며 키우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하여 10월 가을 추국전에 열리는 당일이 되면 어린 손자인 제가 보아도 살짝 상기되고 긴장된 모습으로 교회에서 정하여 준 이름이 붙어 있는 계단에 할머니께서 기도와 노력으로 키우신 예쁜 노란색 국화가 한 달동안 많은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자신이 그동안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며 예쁘게 피어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름다운 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10월이 아름다운 계절인 것은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한 해동안 베푸신 은혜와 성실하신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기에 아름다운 계절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일터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로 키워오고 있었는지 예쁜 국화와 풍성한 열매들 앞에서 돌아보며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Almost without noticing, summer has passed and October's autumn has now come. Whenever October comes, I am reminded of my grandmother, who served as a deacon at our church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The church where she served held an Autumn Chrysanthemum Exhibition every Octobe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would bring chrysanthemums they had grown, attach their names to them, and display them on the church steps. I still remember how, for more than a month, hundreds of chrysanthemums lined each step in full bloom, creating a breathtaking sight. Even as a child, it was so beautiful that I felt as if our church were heaven itself.

To prepare for that exhibition, my grandmother would begin planting chrysanthemum seedlings in pots as early as the beginning of summer. She would place them in the sunlight, fertilize them, and water them often so they would not dry out under the hot summer sun. She raised them with great care and devotion.

But there was one more thing she always gave those flowers. Because they would be displayed at church, she said they must also be nurtured with prayer. Every time she watered them, she prayed that they would grow healthy and beautiful, bringing joy to the congregation and glory to God. I can still clearly picture her tending to them with such prayers.

Then, on the day of the autumn exhibition in October, even as a young boy, I could sense her excitement and nervousness. Her bright yellow chrysanthemums, grown with prayer and effort, were placed on the step assigned by the church with her name. For a month they bloomed beautifully, proudly showing the love they had received from her, bringing joy to the congregation and glory to God.

Without prayer, nothing truly beautiful can bloom. October is a beautiful season because all of creation bears the fruit of God's grace and faithful love throughout the year. How much more, then, should we reflect on whether we have been nurturing the fruits God has entrusted to us—in our church, our families, and our workplaces—with prayer and devotion? My hope is that this October may be a wonderful day when we, too, bear the fruits of prayer and the fruits of love in abundanc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박경철 목사

복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18-25

1. AI(인공지능)의 기능을 일상 또는 사역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활용을 통해 경험하는 주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 느끼십니까?

2. 헤롯의 교만처럼 성공을 향한 나의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은으로 만든 나의 왕복은 무엇입니까? (20-21절)

3.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살아 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영역, 즉 복음의 영향력이 삶의 경계선 너머까지 확장 되기를 소망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고후 6:3-10)

4. 우리가 복음을 마치 '만약의 경우'를 위한 '보험'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복음이 나의 삶의 목적이자 주인이 아닌, '심리적 안정감' 또는 '미래 대비책'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눅 12:33)

5. 나의 직장, 일터에서 또는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썩어 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5절)

적용하기



사역 소개
셀

종합 선물 세트

베델교회의 소중한 귀한 셀사역은 각 목장의 헌신적인 셀목자와 따뜻한 셀모임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며 풍성하게 돕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셀모임은 담임목사님의 은혜롭고 깊이 있는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실제 일상 속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견고하게 자라나는 값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직 셀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주일 코트야드에서 열리는 친근하고 활기찬 번개셀을 통해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셀모임의 따뜻한 교제와 은혜로운 분위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셀사역팀은 매주일마다 환하고 밝은 미소로 코트야드에 알록달록한 파라솔을 배치하고 정성껏 준비하며, 셀사역 부스를 통해 새롭게 셀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의 신청을 친절히 받고 안내합니다.

또한 귀한 셀목자님들을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알찬 훈련과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학기 전에 열리는 체계적인 신임 셀목자 훈련, 학기마다 열리는 은혜 충만한 셀목자 부흥회, 그리고 매월 두 차례(첫째 주, 셋째 주) 열리는 셀목자 정기 모임에서는 각 목장이 흠어져 따뜻한 교제와 활발한 나눔, 기도의 모임을 갖고, 셀 스케치 영상을 통해 현장의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 프리뷰 강의와 다채롭고 유익한 강의들이 제공되어 건강한 셀모임을 풍성히 세워갑니다. 매년 열리는 셀목자 뱅켓은 셀목자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사하는 은혜롭고 기쁜 축제의 자리입니다.

셀사역팀은 조동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팀장, 성실한 총무, 꼼꼼한 회계, 창의적인 미디어/IT/디자인팀,

각 목장을 대표하는 총무님들, 활발한 번개셀, 은혜로운 찬양팀, 정성 가득한 새벽 간식팀 등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셀사역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소중한 사역입니다. 2025년 베델교회의 신앙 여정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이 사역을 함께 섬기는 모든 봉사자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학남 집사



훈련 간증
전도폭발

별보다 빛난 밤



매 학기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는 전도자들은 각자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공통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혼자 아닙니다. 언제나 곁에서 기도로 동행해 주시는 기도후원자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훈련을 완주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훈련생들에게는 실제적인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번 학기 기도후원자의

밤은 특별히 유례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뜨거운 기도와 정성 가득한 음식,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차고 넘쳐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특별히 최 팀장님이 수년 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김 권사님을 이번 63차 훈련의 4 단계 훈련생으로 다시 만나게 된 간증은 모두에게 큰 감동과 깊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실제로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 모두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은 언제나 기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밀렸던 것처럼, 전도 현장 역시 기도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도후원자 한 분 한 분 이야말로 전도폭발 훈련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감사한 동역자들입니다. 별빛이 유난히 찬란했던 그 밤, 100여 명의 기도의 용사들과 60여 명의 훈련생 및 스태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 은혜의 여운은 밤이 지나도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하게 하였습니다.

김선희 집사

사역 소개
일어 예배

다리 놓기의 사명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지만, 아직도 그날의 아픔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위로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외로움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의 처사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더딘 복구 작업으로 인해 물리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당시 일본 전체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멀리서 마음 아파하며 이웃의 불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태평양 건너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델교회 Japanese Ministry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을 맞아 10월 25일(토) 저녁 6시에 남가주에서 세 번째 'The Bridge Concert'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공연은 유료 공연이며, 모든 수익금은 일본의 재해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자리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함께하지만, 이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 주신 다리 놓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민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일본의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는 사역입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엡 2:19)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일본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국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외인이나 나그네들의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동일한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날 밤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다를 건너 일본 땅에 닿을 때,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상처 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감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화해와 치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 사역에 베델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손용주 목사

사역 간증
예향

예수님의 향기에 이끌리어

저는 우리 교회 예향(예수님의 향기) 봉사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예향은 주로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 가정을 섬기는 봉사팀입니다. 음식을 전하며 성도님들의 미소와 '덕분에 치료를 잘 견뎌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몽클해집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성도님은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으셨는데, '예향에서 준비한 반찬 덕분에 다시 밥맛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전달하며 기도드릴 때 눈시울이 붉어지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또 다른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주님 품에 안기신 분들의 가족이 '예향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을 때는 미안함과 감사가 함께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몇 가지 음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향 봉사는 봉사자들과의 교제라는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영적 가족임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누군가는 배달을, 또 누군가는 기도를 맡아 함께할 때, 작은 손길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작은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새로워지고, 환우 성도님들의 감사와 소망을 보며 제 믿음이 도전받습니다. 무엇보다, 지치고 상한 자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분의 손에 들려 누군가의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예향이 이름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

를 소망합니다. 음식이 단순한 반찬을 넘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담긴 향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저 또한 계속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향 봉사는 제게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신앙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강정희 권사



예살 캠퍼스 전도

캠퍼스로 향한 사랑



저는 베델교회 예살채플에 출석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며 제 삶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UCI 캠퍼스 전도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사람들을 만나 교회를 소개하며 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B&B(Barbeque & Boba) 행사에서 전도를 통해 만난 분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준우(청1)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영적으로 침체되어있던 저는 이번 Kosta in Irvine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B&B 소식을 듣고 큰 기대 없이 참석한 저는 전도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한 삶이고 누군가에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흘러가는 예수님 닮은 삶이었습니다. 이번 전도를 경험하며 작은 순종의 결심으로 저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박하은(청1)

처음에는 내가 UCI 학생도 아닌데 굳이 가야 하나 망설이며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지체들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올 텐데 그러면 캠퍼스 전도는 대체 누구를 위한 선택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

다. 그것은 전도는 기독교인의 의무이기 이전에 큰 특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잊고 살아온 저에게 이번 캠퍼스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조문성(청1)

사실 저도 작년에 B&B를 통해 처음 베델에 왔습니다. 낯선 미국 생활 속에서 예살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이번에는 제가 캠퍼스 전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찾는 이들, 신앙이 없는 이들 모두 주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임을 믿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살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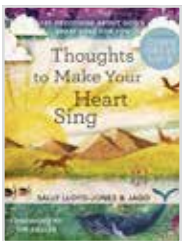
안지우(청1)

교회학교 추천 도서

엄마,아빠 함께 해 주세요

<유년부 추천 도서>

Thoughts to Make Your Heart Sing



101편의 짧은 묵상과 따뜻한 그림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근히 심어 줍니다. 부모님과 함께 읽으며 대화와 기도의 시간이 더욱 따뜻해지고, 아이들은 사랑 안에서

믿음을 키워 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3-8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쓰였지만, 단순한 이야기책을 넘어 성경적 진리와 신앙의 깊이를 담고 있어 초등 고학년이나 청소년에게도 감동과 영감을 주며, 온가족이 함께 나누기에 귀한 선물이 됩니다.

이승진 전도사

<초등부 추천 도서>

The Wingfeather Saga



The Wingfeather Saga is a fun and adventurous series for 4th-5th graders, filled with humor and imagination. At the same time, it shares deep lessons about courage, family, and hope, ultimately pointing to the greater story of Jesus—light, sacrifice, and never-ending love.

The Star



The Star is a fun animated movie that shares the Christmas story through the eyes of animals. Full of humor and adventure for

4th-5th graders, it keeps the focus on Jesus' birth and shows how even the small and ordinary have an important place in God's plan.

The Pilgrim's Progress



The Pilgrim's Progress is a classic story that shows the Christian life as an adventure of challenges, choices, and God's guidance. For 4th-5th graders,

simplified versions help them see how Jesus takes away our burdens and sets us free, just as Christian's burden is removed at the cross.

이정연 전도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목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재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훈란

사역광고

세례/입교 신청

세례는 모든 성도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과거의 죄에서 깨끗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갱아 주신 것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능력은 내 것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례자에게는 큰 기쁨이 되며,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의 인도로 시작된 신앙이 이제는 개인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져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또한 참여하는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로부터 격려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해 교회의 한 가족이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귀한 일에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11월 16일(주일) 3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례 자격/장소: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 교인(6개월 이상 출석)
- ▶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 ▶ 교육 일시: 10월 19일(주일), 10월 26일(주일), 11월 2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 교육 장소: 비전센터 107호실(CIM, BYM, 예상, JM, 소망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 진행)
- ▶ 문답 일시/장소: 11월 9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 교실
- ▶ 세례 및 입교식: 11월 16일(주일) 3부 예배 중
- ▶ 신청 기간 및 방법: 10월 12일(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
- ▶ 문의: 박세환 장로 (949)887-6944, 서동민 목사 (562)447-6947



<신청 QR 코드>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월)	10/12: ①부-김병주	②부-김병찬	③부-김성균	④부-김지인
	10/19: ①부-김인권	②부-김세진	③부-김응진	④부-남경인
	10/26: ①부-김재호	②부-김정태	③부-김재훈	④부-박희주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0,11월)	10/11: 정봉화	10/18: 김정욱	10/25: 김종철	11/1: 김호경
강단꽃(10월)	10/5: 엄기완, 윤주원	10/12: 윤성자, 최경식	10/19: 이수민, 최지은	10/26: 이인철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Charles Oh(이비인후과), 간호사-윤성자, 김리자 다음주 | 의사-정재욱(일반외과), 간호사-박필연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리판

Bethel Announcements

◆ **오이코스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이번 10월 OICOS 예배는 기존과 같이 둘째 주 토요일에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특별히 주중에는 예술 공동체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0월 7일(화)-10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10월 11일(토) 오전 6시, 본당
OICOS 예배 특송: 예술

◆ **J+ 워십 초청 수요저녁예배** 이번 주 수요저녁예배는 K-Pop 현역 최고의 크리스천 연주자들과 다국적 뮤지션들로 구성된 J+워십을 초청하여 열정적인 찬양, 말씀과 간증, 뜨거운 기도가 있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을 가집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8일(수) 저녁 7시 30분 수요저녁예배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조조 무료 영화 상영회** CGN 개국 20주년을 맞아 제작된 영화 '무명' 상영회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무명'은 일제 강점기, 고통 가운데 있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두 명의 일본인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전후로 한 민족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11일(토) 오전 7시 30분(OICOS 예배 후), 본당
특별순서: 피아니스트 공민(일본 선교사) 특별 연주
문의: 손용주 목사 (702)449-2627

◆ **세례/입교 신청**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16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7면 참고)



◆ **동일본 대지진 15주년 기념 The Bridge Concert**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뒤흔든 지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재난이 지나간 그 땅에는 더딘 복구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와 도움을 전하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베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리, 아픈 역사를 공유한 두 나라 백성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이번 The Bridge Concert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25일(토) 오후 6시, 본당
티켓 구매 문의: 코바야시 지나 권사 (213)531-7388

◆ **101차 베델동산 모집** 101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14일(금)-16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집사 (949) 232-0872



<참가자>



<봉사자>

◆ **베델 어린이 크리스마스 합창단** 2025년 성탄절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베델 어린이 크리스마스 합창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등록비: 2-8학년, \$50
오리엔테이션 일시/장소: 10월 18일(토) 오전 7시 30분-9시, EM 채플
연습 시간/장소: 10월 25일(토)-12월 20일(토), 매주 토요일, 본당 2층 찬양채플



<신청>



<찬양 목록>

◆ **교회학교 Family Fall Fest X 오이코프 등록** 베델 온 가족 축제인 Family Fall Fest(10월 31일)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링크는 각 부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문의: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각 부서 전도사

◆ **교회학교 캔디 드라이브** Family Fall Fest(10월 31일)에 자녀들을 위해 사용될 캔디 도네이션을 받는 캔디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캔디 드라이브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립니다. (견과류 제품이나 할로윈 장식이 있는 캔디는 피해주세요.) 대상/문의: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각 부서 전도사

◆ 축하해 주세요

- 이우용/조수진 집사 가정에 아들 사무엘(Samuel)이 9월 28일(주일)에 태어났습니다.
- 이삼열 집사/박은혜 권사의 딸 이서원 양과 Daniel Wasserman 군의 결혼식이 10월 4일(토)에 있었습니다.
- 장인호 집사의 아들 Timothy Chang 군과 Sara Endo 양의 결혼식이 10월 4일(토) 화와이에서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황미진 권사님(정남일 성도 모친, 강진영 성도 시모)께서 10월 1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덕수 장로님(김명림 권사의 남편)께서 10월 3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술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he Gospel is Not Insurance

Acts 12:18–25

1. How are you utilizing the function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in daily life or in ministry? Through that utilization, what do you feel are the mai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you experience?

2. Like the pride of Herod, what is the royal robe made of silver in my desire for success that goes ahead of the will of God? (vv. 20–21)

3. What is the area in which I want to experience the living work of the Holy Spirit who is within me—that is, the area in which I long for the influence of the gospel to expand beyond the boundaries of my life? (2 Corinthians 6:3–10)

4. Let us examine ourselves whether we are regarding the gospel as an “insurance” for a “what if” case. Are there parts where the gospel remains as “psychological stability” or a “future safeguard,” rather than being the purpose and master of my life? (Luke 12:33)

5. In my workplace, at work, or in my family and relationships with loved ones, what can I do in order to become the imperishable treasure of God? (v. 25)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